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식약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# 참 고 자 료

| | |
|---|---|
| 배 포 | 2019.5.31.(금) |
| 담 당 과 |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☎043-719-3240) |
| 과 장 | 이 성 도 (☎043-719-3240) |
| 사 무 관 | 이 영 희 (☎043-719-3259) |

# 녹가루 분유통 관련 녹슮 현상 조사 결과

## 소비자 주의 표시 강화 및 용기포장 개선 업계 권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최근 분유통에 녹이 슬었다는 소비자 불만사례 및 관련 보도에 대해 부식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○ 분유에 사용되고 있는 캔용기 재질은 철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, 주석도금이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 이론상 부식은 발생하기 어려우나 현재 용기 제조 기술상 도금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*이 있으며,

* 용기의 성형과정 중 압력이 가해지거나 굴곡이 있는 부위 등

○ 이러한 취약부위가 수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, 분유 안전캡이 수분증발을 막아 해당부위를 중심으로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.

* 참고로, 전문분석기관에서 실시한 항온항습시험(25℃, 상대습도 60%, 안전 캡 없는 조건)에서 수분에 직접 노출된 경우 일주일까지 녹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으나,

- 수(水)분무시험(35℃, 상대습도 약 90%, 안전 캡 없는 조건)에서는 수일 경과 후에 녹 발생이 관찰됨

- 또한, 소비자 주의환기를 위한 정보제공과 용기포장 개선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지난 27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주의환기를 위한 표시·홍보 강화를 권고하고 소비자 사용 중 불편이 없도록 용기포장 개선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,

○ 관련 업계에서 유가공협회를 중심으로 용기포장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법과 적용시기 등을 논의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, 식약처는 가정에서 분유를 타거나 보관*할 때 계량스푼을 물기가 없도록 잘 말린 뒤 안전 캡 안쪽에 보관하고, 용기 안쪽에는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.

* 개봉 후에는 제품에 표시된 주의 문구를 참고하여 습기, 벌레, 이물질 등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안전 캡을 잘 닫아 건냉한 장소에 보관